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11월 ~ 12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쌀, JCA, 플라스틱, 통관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쌀, JCA, 플라스틱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6. 12. 11
플라스틱 쌀 비디오 방영

2016. 12. 12.
JSA, 쌀 통관 중단 발표

2016. 12. 13.
JCA, 가이아나 및 수리남산 쌀 수입 허용

2016. 12. 17.
BSJ, 쌀 검사 결과 발표

핵심이슈 도출

“자메이카 관세청, 쌀 통관 중단 발표”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자메이카 관세청, 쌀 통관 일시 중단 발표

자메이카 관세청(JCA)는 12일 자메이카로 들어오는 모든 쌀의 통관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RJR뉴스에 따르면 맨체스터 주민 중 일부가 플라스틱 쌀을 구입했다고 주장했으며, 일반 쌀과 흡사한 외양을 띄고 있으나 신축성을 지녔다고 전했다. 사태가 Jamaica TV 등 방송을 통해 확산되면서 JCA는 통관을 일시 중단하고 제품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자메이카 표준국(BSJ)는 시중의 제품을 회수해 테스트를 수행했다. BSJ는 17일 성명을 통해 9개 섬의 55개 쌀을 대상으로 탄력, 수분 함량, 플로트 시험, 불꽃 시험 및 푸리에 변환 적외분광법을 통해 검사했으나, 오염되었거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쌀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메이카에서 쌀은 주요 작물 중 하나이나 비료 등 투입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독립농장의 몰락으로 저렴한 해외 수입 농작물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JCA는 주변국인 가이아나와 수리남으로부터 수입된 쌀의 통관을 허락했으나, 극동지역의 쌀 수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29일 현지 언론기관인 Jamaica Observer의 조사에 따르면 플라스틱 쌀이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믿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메이카 현지 응답자 중 70%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농민 시민단체인 자메이카 농업사회(JAS)가 'Eat What You Grow' 캠페인을 통해 자국에서 생산된 쌀을 소비할 것을 강조하는 등 자메이카 내에서 현지 생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자메이카의 쌀 수입양은 2015년 기준 95,000톤 수준으로 2006년 이후 80,000톤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플라스틱 쌀 관련 이슈가 확산됨에 따라 수입농산물에 대한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과 한국이 포함된 극동 지역으로부터의 쌀 수입에 대한 우려가 높으며 조사 과정에서 라벨링 등 추가 적발 사례 또한 주목 받고 있다. 자메이카로의 곡물 수출을 준비중인 기업은 라벨 및 통관규칙을 준수하는 등 현지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라벨링, 표준 등 자메이카 식품 수입 규정은 자메이카 관세청(JSA)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jacustoms.gov.jm/home_template.php?page=restricted&group_id=1)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